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4월 26일 화요일 (음 3월 20일) 제154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도내 20대 총선 당선자 배정될 국회 상임위

전북현안 위해 골고루 배정 '필수'

19대 국회 후반기엔 어땠나?

농해수위에만 의원 3명 몰려 지역현안에 제대로 대처 못해

20대 국회때?

특정 상임위 기피현상 계속되면 전북도내 현안은 '유턴' 맞을 듯

20대 총선 당선인들의 임기 시작을 앞두고 상임위 배정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등 3당 체제로 구성된 20대 총선에서는 지역 현안을 추진할 수 있는 상임위에 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 전북지역 의원들의 숫자가 감소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골고루 분산된 상임위 구성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과거처럼 표만 믿고 움직여서는 안 되고, 따라서 다양한 전문사업 관련 상임위 배정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토위, 법사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정부위 등 18개 상임위 체제(상설특위 포함)로 구성돼 있다.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통상 의원 각자가 희망하는 곳을 제출하면 각 당의 원내 대표가 지칭하고 다수 의원이 중보되면 조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북은 지난 19대 후반기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최규성, 유성엽, 박민수), 보건복지위원회(김춘진, 김성주), 국토교통위원회(김윤덕, 강동



이형규 전북도 정부부처사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브라질 스퀘어트 총회에 참석, "새만금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를 개최하고자 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은 마르코 아우렐리오 총재(오른쪽에서 세번째)와 함께 하고 있는 모습.

원, 정부위원회(이상직), 산업통상자원위원회(전정희), 법사위원회(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김관영) 등이 배정 받았었다.

11명의 의원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만 3명 의원이 몰려 지역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배정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어 태권도원 예산을 따는데 타시도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야만 했다.

20대 당선인들의 특정 상임위 기피 현상이 또 다시 일어난다면 이번에도 전북 현안이 유턴을 맞을 가능성이 나

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내 국민의당 당선인들의 상임위원장 배정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정부 부처를 비롯해 산하 기관별로 분류된 상임위를 이끌면서 각종 법령 개정과 예산심의 과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모든 당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북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당 당선인들의 상임위원장 배정 가능성은 농축해수위, 산지위, 국토위, 법사위 등이다.

이 가운데 법사위는 그동안 야당 몫인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조배숙 당선인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농축해수위는 유성엽 의원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내 추대시 상임위원장은 다른 의원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정가 관계자는 "지난 22일 도-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골고루 된 상임위 배정으로 전북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 일치를 봤다. 여야 당선인들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상임위로 배정돼 전북 예산을 따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1년 무급휴직제 시행

인사혁신처, 개정안 입법예고 반론도 있어 실효성 우려도

정부가 5년 이상 재직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연구과제나 학습 등을 위한 무급휴직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자기개발휴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5년 이상 재직된 공무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자기개발휴직' 규정이 시행되면 다양한 자기개발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공직 내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실제 공무원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과업연이나 자리를 비울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같은 이유에서 실효

성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개정안은 또한 역량을 갖춘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최대 7배수까지였던 승진 심사 범위를 최대 10배수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2년 이상 7급으로 재직된 공무원의 경우 상위직급인 6급의 결원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기존의 20%에서 30%로 늘렸다.

이밖에 개정안은 방역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 직류'를 신설해 공직 내방역 전문가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방역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한지 채용 요건의 경우 '본인 또는 직계존속 5년 이상 거주'에서 '본인 5년 이상 거주'로 개정해 제도시행의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인사처는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일본 여행업계 큰손 'H.I.S JAPAN'의 전북 상품

'전통과 미래의 하모니 한옥마을과 먹거리' 판매

6월부터 예정... 내달까지 전주·군산 답사

일본의 손꼽히는 대형 여행사가 도내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전북을 찾는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 세계 61개국에 192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H.I.S JAPAN'이 한국 상품의 다양화와 차별화를 위해 지방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오는 6월부터 새로운 한국 관광 상품인 전주와 군산을 연계하는 '전통과 미래의 하모니, 전북의 전주 한옥 마을과 군산 먹거리 여행'이란 이름으로 지역과 동남아 지역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들 H.I.S JAPAN 본사의 상품 개발팀 6명은 26일 전주 한옥마을 전동성장과 경기전, 오목대

등을 둘러보며 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달 24일에도 군산지역 상품 대상 장소인 근대문화유산 일원을 둘러보기 위해 전북에 올 예정이며 두 차례 사전답사가 완료된 경우 상품개발 및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근주 도 관광총괄과장은 "방한 일본관광객이 최근 몇 년 사이 감소세로 작년에 183만 명으로 전년 대비 45만 명이 줄어, 최저점을 찍은 후 반등이 예상된다"며 "전북은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군산 근대문화유산, 전주 한옥마을 등을 적극 홍보해 일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국민의당, 연말까지 안철수-천정배 체제 유지

당헌 부칙에 따르면 창당 시점인 지난 2월 2일부터 6개월 이내인 8월 2일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새로 뽑도록 되어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국회화 이전에는 지역위원장도 모집해서 문호를 개방해 그 분들이 들어올 길을 터줘야 한다"며 "2년 뒤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인재모집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에는 현재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기간 당원도 없다"며 "기간당원이 당 대표

를 뽑도록 돼 있는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6개월 간 기본체제를 튼튼히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6~27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리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론을 내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대 연기에 반대가 없었냐는 질문에 "반대라기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당헌상 전대를 8월2일까지 (열기로) 돼 있는데 (이름) 잘 지키기 위해서 오해의 소

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히 이유를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 그 문제는 거론조차 안됐다"며 "일단 전당대회만 불가피하게 공강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당선자 38명과 최고위원 밖에는 없다. 당원, 시도당, 지역위원회 없고 중앙당도 미비하다"며 "인재영입 해서 지역위원장을 공모하고 심사도 해야 하는데 (8월에) 전당대회를 열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고 그 과정보다는 20대 국회가 더 중요하다"며 전당대회 연기에 힘을 실었다. /이성주 기자

▶ 매일 INDEX

3면 국민의당 이호호 당선인에게 묻다

5면 일반고 입학 선별고사 폐지 추진

단풍미인쇼핑몰

가정의 달 기념 5월 한달 내내 펼쳐지는

릴레이 페스티벌

오월 한달 내내 **경남 내외의 사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 단풍미인 쇼핑몰 오픈 5주년
5: 5월 가정의 달
5: 5번의 기념일에 감사의 건강꾸러미를 드립니다.

전국 어느 곳이나 **우체국 택배**로 **모든제품 100% 무료배송**

주문예약

단풍미인쇼핑몰
http://www.danpoongmall.com

고객만족전화 080-535-4345 / 063-532-4345

네이버에서 단풍미인쇼핑몰을 검색해 보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응원합니다.**

첫번째 릴레이: 근로자의 날을 위한 꾸러미로 주는 분, 받는 분 모두가 만족스러운 건강꾸러미입니다.

예약일 4월 26일(화)까지 발송일 4월 27일(수)

5월 5일 어린이날 **행복하거라.**

두번째 릴레이: 어린이 날을 위한 꾸러미로 외갓집 외할머니의 정성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예약일 5월 2일(월)까지 발송일 5월 3일(화)

5월 8일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세번째 릴레이: 부모님을 위해 최적화된 건강꾸러미로 자녀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최상의 꾸러미입니다.

예약일 5월 2일(월)까지 발송일 5월 3일(화)

5월 15일 스승의 날 **존경합니다.**

네번째 릴레이: 드리는 분의 정성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정성껏 준비한 품위있는 꾸러미입니다.

예약일 5월 10일(화)까지 발송일 5월 11일(수)

5월 21일 부부의 날 **사랑합니다.**

마지막 릴레이: 부부의 사랑을 표현하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구성된 의미있는 꾸러미입니다.

예약일 5월 18일(수)까지 발송일 5월 19일(목)